

내달부터 월 600만원 급여자 세금 3만원 더 댈다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월소득 600만원을 기점으로 내달부터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날다. 4인 가구 기준 월 세부담액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 3만원씩 연 36만원 증가하며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연 120만원 이상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21일 공포후 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뀐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시행시기는 내달 21일 이후여서 이전에 2월분 급여를 받았던 새 간이세액표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 표를 보면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연간 120만원 이상 늘어

중소기업 세금지원 확대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 이상인 사용자의 구매실적과 현금인출 실적을 관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쓰인다. 세입기반 확충차원에서 도입된 고소득 작물 재배업자의 소득세 과세 기준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무원 직급보조비,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등과 함께 2015년부터 적용된다. 재외근무수당 가운데 실비반상 성격이 강한 특수지근무수당, 생활비보조금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더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배우자라도 가업에 뛰어들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매출, 수출목적 국내거래를 과세대상에서 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 조세범칙행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입수했을 때에는 세무조사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또 면세유류 부정발급에 따른 벌금이 신설돼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공사의무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총자산가액 5억 이상, 수입금 및 출연재산 합계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손실거래도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남뉴스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고소득 작물 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 과세연환	작물재배업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 공무원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상환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재외연환 금액에 소득세 과세
● 고용상용특례지역공제 적용대상 기업종류 확대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 추가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	통류권 발행에 도전업 추가 직물재배업, 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중 종업원 수 기준 50명 미만으로 확대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
● 4인 이상 동거세대 소득세 과세 시 과세기간 계산 방법 보완	총급여, 사업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 연도는 과세기간 계산 제외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상속인 요건 완화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또는 50% 이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자인 경우 피상속인 대표자 재외연환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한 할당소득추징금 과세 기준 완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총이익에의 과세시, 과세기준을 3%에서 10%로
● 발전용 유원전,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 세율 조정	발전용 유원전 5,000kwh/kg 이상: 19%, 5,000kwh/kg 미만: 17% LNG 42원/kg, 등유 43원/kg, 프로판 (가정·상업용) 14원/kg
● 중소기업 제조자 세제 지원 확대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3,000만 이하 사업자, 최초 매출 500만 이하 30% 세율 감면
● 조세조약 등 이해관계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연환 폐지	정보통신 관련 국제계좌 미준수 국제계좌는, 보조금,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카리파스, 파라과이, 토고, 세이셸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연환 폐지
● 면세품 특허제에 대한 과세연환 신설	중간·기초 기술을 1. 직접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2. 자선 1호선 미만 3. 자선 1호선 미만 법인(국외법인 포함)에 주주출자 20% 이상 소유 (최소출자자지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4년 협력사 윤리경영 간담회



23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서 열린 '2014년 협력사 윤리경영 간담회'에서 박홍석 금호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오른쪽 7번째) 등 금호타이어 임원진과 협력사 대표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윤리경영으로 동반성장 합시다”

금호타이어 54개 협력사 초청 신년 간담회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23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퍼포먼스센터(KPC)에서 윤리경영과 상생협력의 주제로 '2014년 협력사 윤리경영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재한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 사장과 김석호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 박홍석 경영기획본부장 등 주요임원과 설비·자재 관련 협력사 54개사 대표 및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는 협력사와 함께 신년하례식을 갖고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

생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한편, 금호타이어가 수행하고 있는 윤리경영 활동과 방침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윤리경영 방침은 그룹 전략경영실장인 사재한 사장이 직접 설명하며 윤리경영에 대한 그룹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상철 구매2팀장은 “윤리경영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꼭 필요한 경쟁력”이라며 “금호타이어와 협력사가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30여곳 작년 국내서 1만7000명 신규 채용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지난해 국내에서 1만7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330여 1차 협력업체는 지난해 1만7215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전년의 1만4531명보다 2684명이 증가했다. 또 협력업체들이 당초 계획했던 신규 채용규모 1만명보다 70%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국내 대규모 고용 창출은 현대·기아차와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 향상 등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량 확대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는 협력업체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협력업체들이 경영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2012년부터 협력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두 번째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는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 전국 430여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광주를 비롯, 서울, 대구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개최돼 수만 건의 취업 상담이 진행되는 등 큰 성과를 이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3일 광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개장한 직거래장터에서 농협광주본부와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광주지방검찰청

설맛이 지역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변찬우)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23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맞이 농축산물 특별판매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개장한 직거래장터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생산한 방울토마토, 한라

봉, 표고버섯 등을 비롯한 관내 생산 우수농산물과 설을 맞아 각종 과일선물세트, 한우선물세트, 계수용품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임직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떡

메치기 및 우리농산물로 만든 인절미 시식회,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한우불고기 시식회 행사를 함께 하였다.

이근 본부장은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정책에 가장 걸림 것이 직거래 장터”라며 “앞으로 로컬푸드점, 꾸러미사업, 독립형 신토불이창구 개설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피와 땀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전량 소비시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세청 홈택스 주민번호 조회 시스템 개선

국세청은 전자 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의 법인사업자 정정 메뉴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 내의 법인 대표자 명의 변경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후

면”이라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 인식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정 방식도 법인 공인인증서로 개별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한 경우만 성명을 제공하므로 특정 개인의 정보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1947.59 (-22.83)	522.72 (-0.35)	2.90% (-0.02)	1073.90원 (+6.50)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유루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2014 입학축하! COSMOS KAWAI 피아노 특별판매

엔화의 환율 하락에 연동한 최대 30% 할인된 솔직한 가격. 42년 역사의 (주)코스모스 악기가 공식 수입, 직접 공급하여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모델명	GM-10	GE-20	GE-30	RX-2	RX-3	RX-5	RX-6	RX-7
단말	¥1,165,000	¥1,240,000	¥1,453,000	¥1,640,000	¥2,047,000	¥2,382,500	¥2,782,500	¥3,307,500
특별 판매가격	10,500,000	11,000,000	12,000,000	13,000,000	14,900,000	18,400,000	21,600,000	25,800,000

가이아 그랜드 피아노의 특징

1.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가이아 피아노는 세계최대의 그랜드 피아노 공장인 일본 하마마츠 류요 공장에서 제작.
2. 87년 역사, 3대에 걸친 타협 없는 철저한 품질관리.
3. 세계최초의 “카본 ABS 내장 건반 액션” 이 적용된 “일레니움 III” 건반사용

한정수량 품절주의 전화문의주세요.

RX-3 파격할인 29,000,000 14,900,000원

COSMOSMUSIC.COM
광주지점 062)515-8844